

인터뷰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임금 확보되어야”

— 건설근로자 복지는 공제회가 책임진다는 사명감, 불법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을 —

첫인상은 온화해 보였다. 하지만 국정 최고 기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꼬트머리에 있는 건설근로자들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경계심이 일었다. 그래서 질문을 “왜 많은 곳 중에서 건설, 그것도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기관을 선택하였는가?”로 시작하였다. 답변은 거침이 없었다. 이진규 이사장은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오랜 국회 및 국정 경험을 쌓은 공직자로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다”면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사장직을 제의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회 이사장의 가장 큰 역할을 ‘키퍼(keeper)’라고 설정했다.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한 만큼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외부의 압력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공제회가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직원의 존재 가치가 건설근로자에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역설하였다. <편집자 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취임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이사장님께서 주요하게 추진하신 사업 내용과 성과는 무엇인지요?

지나간 세월은 역시 빠른 것 같습니다. 겨울 한복판에 취임했었는데 봄이 가고 벌써 늦여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공제회가 1998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했으니 금년이 16년째가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한창 클 나이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공제회가 올 초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의 일환인 퇴직 공제금 사업이 주된 일이었지만, 설립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복지나 교육·훈련 사업도 꽤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런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을 달성하기에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제회부터 바꾸고, 새롭게 정돈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변화와 개혁'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과 부서간 협업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건설 근로자들의 복지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이랄까... 하여튼 우리 임직원의 정신 자세부터 새롭게 확 바꿨습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민과 열정을 모든 임직원들이 갖게 되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건설산업을 지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평가와 일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눈높이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는 풀릴 기미가 없고 국민 각자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우리 일용직 건설 근로자와 같은 사회의 힘든 계층을 돌아보는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일을 못나갔는데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또 일을 못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숨을 보자면 무거

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제회는 그동안 약 23만명에게 3,700억원을 퇴직 공제금으로 지급했고 생활 자금 대부, 학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 취업 지원, 교육 훈련 등 아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설 근로자들의 제대로 된 노후 보장에 지금의 일액 4,000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수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 훈련이나 취업 지원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건설 근로자들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건설업이 대표적인 3D업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은 젊은 층들의 건설업 외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설 현장 유입도 우리 근로자들의 고령화에 한몫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70~80%가 외국인들이라서 우리 근로자들이 '마치 외국에 나와 일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 근로자들의 고령화 문제는 이제 건설업계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임금 확보'가 시급합니다. 경력과 기능 수준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대책 강화, 동절기 수입원 마련, 주월차 수당 신설,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마련도 긴요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보일 때 우리 건설 현장에도 젊은 층들이 모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터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외국 인력, 특히 불법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적인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그런 순기능보다 악영향이 훨씬 많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일 것입니다. 문제는 불법 근로자들입니다. 현장 곳곳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의 일터를 잠식하고 있는 데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저가 수주 등도 조금이라도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를 찾게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이 10년째 거의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도 외국 인력의 대거 유입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냉철한 재검토와 함께 불법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공제회에서는 종합지원이동센터를 개설해 전국의 새벽 인력시장 등에 대한 순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제회에서는 찾아 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3년 전부터 5톤 트럭을 개조한 종합지원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제부금 적립 내역 확인은 물론 취업 알선과 교육·훈련 정보 등 종합 복지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그동안 약 2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 그동안 차량 1대로 전국을 다녀야 해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는데 올 연말에 차량을 추가로 1대 더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의 기회가 확대되어 현장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본연의 공제사업 외에 복지 등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만...

우리 공제회가 설립될 당시 건설 근로자들에게는 퇴직 후 노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노후 대책이 가장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미래(노후)에 대한 불안감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제회의 주요 사업을 두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노후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퇴직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공제부금 일액 확대는 물론이고 공제부금 수혜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지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걱정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심정에서 장학금 확충과 학업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강의 무료 수강 등 교육 지원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보조금 지급, 단체 보험 혜택 부여, 무료 법률 지원 사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 주십시오.

건설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경제의 핵심인 건설산업이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인프라 공급, 일자리 창출 및 해외건설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주역이었습니다. 지금의 건설산업이 과거의 성장 단계와는 다르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 경제 발전 단계에서 보면 일견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매년 13만 명의 건설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게 된다는 점은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건설업 종사자들만이 아니라 관계 당국과 전 국민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땀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꾀통 같은 더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안도감에 땀 한번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는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한국 경제가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CERIK

글·사진 : 이 형 우 편집장